

〈바울의 메시지〉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9/24(주일) 설교 내용

사도행전 28:30-31

1.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면 그는 증인석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증인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게 된다면, 그 증언은 나의 견해나 느낌이 될까요? 아니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하는 것일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이거나 구체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부모님, 혹은 자녀들)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가족들의 성품, 외모등에 대해 별 어려움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어려움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 혹은 생소한 분들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며 모두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믿음'의 개념과 오늘 말씀에서 다루었던 '믿음'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구절을 다 읽는데 시간적 부담이 있다면,

히 11:4-12, 17-32 부분만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가치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인식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행위적인 실천(동사)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배참석, 말씀과 기도생활, 헌금, 전도 등)

3.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개개인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